

혼인준비자들의 혼례예절교육 요구도 연구

A Study on the Need for Wedding Etiquette Training for Premarital Education

주영애(Ju, Young-Ae)*

Department of Living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ssess the need for wedding etiquette training for couples in order to provide basic educational materials for brides and grooms-to-be. This survey consisted of 43 questions. The questions pertaining to the need for wedding etiquette training were measured using the 5-point Likert scale. Th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September 1st, 2011 and December 1st, 2011. The research subjects consisted of 230 brides and grooms-to-be.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F-test, t-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win17.0. Based on our findings, we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proposals and conclusions.

First, as the importance of a wedding education program could be ascertained, educational demands need to be gathered and applied to the operation of such programs.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need to be activated by wedding preparation education centers or the Health and Family Support Center, on weekends or week nights 3 months prior to a couple's wedding ceremony.

Second, wedding etiquette training content needs to be included in existing education programs that primarily focus on helping couples adapt to married life. Such training content should specifically include the etiquette of exchanging wedding presents, home life etiquette, etiquette for the formal meeting between the families of the bride and bridegroom, *pyebaek* etiquette and *ham* (a box of wedding gifts sent by a bridegroom to his bride before the wedding) etiquette.

Third, when examining the particulars of the need for wedding etiquette training,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couples should be properly educated about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wedding presents, *pyebaek* and *ham* that are required during traditional wedding ceremonies.

Fourth, the need for wedding etiquette training was shown to be higher for women than for men. It was also higher for individuals in specialized fields than for ordinary company employees. Wedding etiquette training programs need to be structured with such considerations in mind.

Fifth, when structuring the program for wedding etiquette training, the correlation of the needs for training should b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training plans by dividing the program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formal meeting between the families of the bride and the bridegroom, *ham* and wedding presents, wedding ceremony etiquette, *pyebaek*, and home life etiquette training.

▲주제어(Key Words) : 혼례예절(wedding etiquette), 혼례예절교육(wedding etiquette training), 혼인준비교육(premarital education), 건강가정지원센터(health and family support center)

• 이 논문은 2011년도 후기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Ju, Young-Ae, Department of Living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Woonjung Green Campus B-223, 55 Dobong-ro 76ga-gil, Gangbuk-gu, Seoul 132-732, Korea, Tel: 82-2-920-7481, E-mail: jyoungae@sungshin.ac.kr

I. 서론

우리나라는 개화기 이후 오늘날까지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혼례풍속도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쳤다. 예식이나 예복, 예식절차 등 한국의 혼례문화는 시대 변화와 더불어 외형적인 큰 변화를 겪어왔다.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혼례는 서구의 혼례와 전통혼례의 절차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행연구(Hwang, 1994; Lee, 1998; Kim, 2008; Ju, 2010; Lee, 2012)를 보더라도, 서구 혼례의 형식을 취한 웨딩드레스착용, 웨딩사진촬영, 신혼여행 등의 기본적인 형식을 취하면서도, 대부분 상견례, 함보내기, 폐백, 신행 등의 전통 관습적 혼례절차를 따르고 있다. 즉 서구의 혼례형식이 도입되어 널리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지켜오는 의례문화의 하나로 전통혼례 형식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예단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축복받아야 할 혼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서 결혼 3년차 이내 부부 300명 설문조사 결과, 결혼 비용 중 가장 가까운 항목으로 예단과 예물(35.3%)이 지적(chosun.com, 2012.7.2.)된 바 있고, 최근 결혼정보회사 듀오웨드의 예비부부 317명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준비가 싸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도 예물예단(27.1%), 결혼식(17.7%), 혼수(6.3%), 상견례(6%)로 인해 싸우는 것(donga.com, 2013.8.12.)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인 당사자와 부모 모두에게 혼례과정에서 어려움이 되고 있는 바를 시사한다. 한편 예단 문제에 대해서는 경북소비자보호센터가 '착한 결혼을 위한 소비의식조사' 발표(yeongnam.com, 2013.2.14)를 보면, 체면문화(30.9%)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예단예물은 전통 방식이니 남들이 하는 만큼 해야 한다(7.5%)의 견해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듯 현대에서는 전통혼례방식은 개선되어야 하는 구습으로 회자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전통사회에서는 혼례 때에 혼수의 후박(厚薄)을 운운하는 일은 멀리하도록(Lee, 1982) 경계하였다. 혼인당사자와 양가의 가풍을 존중하면서 가정 형편과 분수에 맞게 예법에 따라서 정중하게 혼인을 하도록 했었으나, 현대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전통혼례의 긍정적인 행태는 오히려 왜곡되고 퇴색되어가고 있고, 물질만능사회의 가치와 혼재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혼례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할 때, 혼례에 대한 의식 변화와 이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행의 혼인준비교육에 대해 점검해보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혼례문화정착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발전적인 생활문화의

전수차원에서도 시의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현행 혼례에는 전통혼례의 관행들이 혼재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한국전통혼례절차에 대한 교육 경험은 조사 대상의 85.4%가 거의 없고(Ju, 2010), 혼인준비과정에서 혼인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웨딩업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도 부족했던 바, 전통혼례에 대한 체계적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Kim, 2008) 필요성이 제기된 바를 보더라도 실제 혼례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의 내재는 예측 가능한 바다.

그러므로 혼례과정인 상견례, 함보내기, 예식, 폐백, 신혼여행 등의 절차를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혼인당사자들은 주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혼례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가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객들에게도 혼례절차의 올바른 의미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혼인당사자의 경험은 개인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전수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교육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진 바가 없고, 관련연구들도 혼례절차에 대한 이해도나 의식조사(Lee, 1982; Hwang, 1994; Lee, 1998; Kim, 2008; Ju, 2010; Lee, 2012)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시행되어온 혼인준비교육에서의 보완점을 재인식 해보고, 앞으로 혼인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혼인 전 혼례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안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후세대에게 한국생활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혼인준비교육

혼인준비교육은 선행연구(Yoo, Oh, & Lee, 1995; Park & Kim, 1997; Oh, 2001; Paek, Seo & Shin, 2003; Sohn, Kim, 2005; Kang, 2008; Park & Lim, 2009)에서 '결혼준비교육'으로 일컬어져왔다. 이 교육은 공식적으로 1924년 보스턴 대학에서 Groves에 의해 결혼 및 가정생활준비(Prepar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Living)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강좌가 열렸고(Park & Kim, 1997; Oh, 2001)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사회교육원이나 교회, 선교회 등을 중심으로 개최되어왔다. 최근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개최되어왔던 혼인준비교육은 <Table 1>과 같다. 이와 관련한 연구(Kim, 1990; Yoo, Oh, & Lee, 1995; Park & Kim, 1997; Oh, 2001; Paek, Seo & Shin, 2003; Park & Lim, 2009)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준비교육은 광의와 협의의 교육으로 나누

Table 1. Case of Premarital Education According to Precedent Study : 1970-2000

Period of time	Institution & Program	Characteristics
1970s	<ul style="list-style-type: none"> Keimyung Social Education Center [Bride Univ.] Daegu Univ. attached organization [Gumi Family Life Welfare Program] Pohang Women's Community Center [Bride Univ.] Gyeongsangnam-do Women's Community Center[Lady Univ.] 	Premarital Education provided at Universities & Local Community Group. Contents: Cooking, Manner, General Education, Home management, Marriage & Family
1980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oul YMCA[Marriage Program]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Premarital Education] Dept. of Philosophy. Sogang Unvi. [Special lecture about wedding preparations] Duranno Presbyterian Church [Marriage School for premarital adult]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Fostering and Education of the New Generation [Preparental Education Program] Full Gospel Church [Marriage Class for premarital adult] Catholic Educational Program [Choice] 	Premarital Education provided at universities & Local Community Group, Religion Organization Marriage guidance Contents: Family Relation, Communication, Sexual life Self-image, Practical knowledge & Skill for Marriage
1990s	<ul style="list-style-type: none"> Youngnak Presbyterian Church[Premarital Education] DongAnn Church[Marriage expectant couple & new marriage education] Missionary work Training Institute. [Hill of Love] Jesus spirituality church [Marriage School] Univ. Missionary Society [Premarital School] New-Family Missionary Society [Premarital School] Ewha Univ. [Marriage preparation] 	Premarital counseling
2000s	Health Family Support Centers : [Premarital Education] Seocho/[Premarital Education]	Healthier wedding culture/ Happiness of family life/ Local government & Religious organization /Education of Health Family Support Centers

어볼 수 있는데, 광의의 교육은 구체적인 결혼상대가 정해지기 전에 행해지는 결혼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을 의미하고, 이는 결혼 및 가족생활교육에 가까운 개념(Kim, 1990)이다. 협의의 교육은 결혼상대가 정해진 커플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결혼생활 즉 부부적응 과정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부부생활적응교육 프로그램의 몇 가지 내용을 보면 <Table 2>와 같다. 혼인준비교육이란 혼인 전에 혼인 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과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상호작용적 관계를 지향하면서 결혼생활의 문제를 예방 또는 문제 해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Oh,2001) 등을 예방적 차원(Park & Lim, 2009)에서 학습하고 경험을 갖게 하여, 혼인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1년 혼인·이혼통계자료」 발표(2012.4.19)에 의하면 2011년 이혼은 11만4천 건으로 전년보다 2.2% 감소했으나, 조이혼율은 인구 천 명당 2.3건으로 전년과 유사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이혼문제는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2008년 이혼숙려제도 도입이후에 협의에 의한 이혼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생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혼인 후의 부부들의 적응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혼인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인 효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다.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아존중감, 평등한 역할,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여 결혼 전 커플의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Jung & Kim,2001; Lee, 2007; Park & Lim, 2009)는 것이다. 또한 교육 후에는 '결혼관',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의식', '성역할관' 등의 준비도가 높아지는 결과(Sohn & Kim, 2005)를 보일 뿐만 아니라 부부의 결혼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Byun, 2008)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혼인준비교육은 부부를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교육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 후 가족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생애주기별 교육으로 예비부부 및 신혼기

Table 2. Wedding Etiquette Training Program for Premarital Education (examples)

Program	Institutions & Organizations	Program & contents
· Premarital Education	·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Meaning of Marriage & expectations / Matrimonial Communication/ Sex & Love/ Life Planning etc.
· Marriage class · Premarital Education	·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Beautiful! Arranged Marriage. /Marriage & triangle of love/ The marriage institution Marriage & Humorous
· Wedding class	· Wedding Life	Problem-Solving :wedding preparations / Expectations about Marriage
· Newlyweds' school	·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spouse / Communication Skill & Problem-solving skill/ Understand of spouse or other family members /Sexual activities satisfaction/ Anger Management etc.
· Marriage School for premarital adult	· Buddhist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Family Life/ Thrifty Domestic Economy /Family Life: prospect & Love/ Effectiveness Communication Consumer life & Credit Card/ Life Planning / Household philosophy
· Premarital Education	YMCA	Matrimonial Communication/ Family Moral/ Sex & Health
· Premarital Education	Hwaseong/ Health Family Support Centers	Best Partner/ Beautiful Marriage/ Happy Marriage/ Whole family happiness/ Can be a good parent/ Loving children/ We are prepared
· Marriage expectant couple & new marriage education	Hwaseong/ Health Family Support Centers	Marriage & Family/ Gender Equity /communication/ Husbands and Wives on Marital Conflict / Anger Management / Love Sharing
· Premarital education programs	Secho/ Health Family Support Centers	Understanding others' preferences/ Communication Style/ Household Finance Planning
· Premarital Education & Training Program	Hanna wedding club	MBTI Personality Types & couple relations/ Family Relation/ Household Finance Planning

가족교육, 아동 청소년기 가족교육, 중년기 가족교육, 노년기 가족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Hwaseong Health Family Support Centers). 이 중 예비부부 및 신혼기가족 교육과 혼인준비교육은 결혼의 초기적응을 돕고 결혼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다. 이는 가족문제예방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혼인준비프로그램은 중앙센터의 기본 메뉴얼에 기초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총 6회기의 내용으로 1회기에는 자기이해, 2회기에는 양성평등 역할분담, 3회기에는 의사소통기술, 4회기에는 즐거운 성, 5회기에는 갈등 대화, 6회기에는 분노다루기 등으로 구성(Kang, 2008)된다. 또한 <Table 2>에 제시했듯이 웨딩라이프나 한나웨딩클럽과 같은 웨딩업체를 중심으로 한 결혼예비학교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육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성과 건강, 부부갈등 해결, 의사소통과 대화법, 가정경제생활설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혼인준비교육이나 선행연구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효과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Lee(2007)의 연구를 보더라도 한국의 혼례관행으로부터 빚어지는 갈등 등

을 다루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 혼인준비과정에 발생한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한국의 현 사회 상황에서는 혼인준비교육에서도 서구의 교육모델에 입각하여 혼인 후 생활적응을 초점으로 하는 교육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즉 혼인 준비과정에서 알고 대처해야할 다양한 혼례예절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추가보완 된다면 혼인준비과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혼인준비교육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혼례관행과 예절교육내용의 필요성을 현실에 적합하게 조명하여, 반영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 혼례예절

예로부터 부부관계는 곧 인륜의 시작이며, 혼례절차는 가장 신성되고 중대한 것으로 여겨져 경솔하게 거행되어서는 안 되었다(Lee, 1982). 절차는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사례(四禮)였고, 의식의 주관은 가부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Lee, 1982).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혼례식은 이러한 전통적인 혼례절차가 관행적으로 적용됨과 동시에

현대형식이 혼합되어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혼례예절이란 선행연구(Hwang, 1994; Lee, 1998; Kim, 2008; Ju, 2010; Lee, 2012)를 참고로, 전통적인 혼례절차를 반영하면서도 현재 지켜지고 있는 혼례절차상의 상견례, 함보내기, 예단, 예식시의 태도, 폐백, 신혼여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에티켓과 가족생활예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현행 웨딩컨설팅에서 제시하고 있는 웨딩가이드를 보면 상견례, 예단예물, 함, 폐백등의 전통적인 혼인 관행(<http://www.vgood.co.kr/verygood>)절차들이 있고, 그 외에 필요한 웨딩홀결정, 청첩, 신혼여행지 선정 등의 현대적 혼인절차들로 제시되어 있다. V컨설팅중사자들과의 인터뷰(2011.9)에서도 '결혼준비체크리스트' 등의 키워드를 온라인에서 검색하는 것은 혼인준비자들에게는 익숙한 것으로 회자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혼인준비자들은 이러한 온라인 자료들을 참고하여 일정한 혼례절차를 따르려는 경향은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상견례는 결혼식에서 신랑신부가 공식으로 서로 동등한 예를 지켜 마주 하는 인사, 또는 결혼식이 끝난 후 시가부모를 비롯한 웃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손아래 친척들과 만나 보는 구고례(舅姑禮), 또는 역사적으로는 새로 임명된 사부(師傅)나 빈객(賓客)이 처음으로 동궁(東宮)을 뵈던 의례(<http://terms.naver.com>)를 말한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공식적으로 만나보는 예' 또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마주보고 하는 인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웨딩산업 현장과 일반사회에서는 신랑신부가 양가의 부모를 모시고 혼인을 의논하기 위해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를 '상견례'라 일컫고 있다.

함보내기는 납폐(納幣)에 해당하는 절차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혼서지와 채단을 보내는 과정을 말한다(Kim, 1997). 최근에는 함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나, 선행연구(Lee, 1999; Kim, 2008; Ju, 2010)를 보면 함보내기는 계승하고자하는 절차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예단의 경우, 전통혼례절차에서는 오히려 그 의미를 강조해 왔던 바를 볼 수 있다. 예단은 납폐물품으로 청홍채단, 혼수, 혼서, 물목을 넣어 신부집으로 보내는 것이었고, 음양의 결합을 뜻하는 玄纁(家禮輯覽)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서는 종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家禮增解)고 하였다(Lee, 1982). 즉 이는 시대적인 차이는 있더라도 과다혼수의 경계를 일컫는 바로 볼 수 있다. 현대의 예단문제는 물질중심의 과시적 체면의식과 맞물려 나타난 바가 문제의 중심이 아닐까 한다. 혼례예절교육에서는 과다한 예단은 지양하고 그 의미와 드리는 분의 범위, 비용 등에 대한 예의범절을 재조명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식 시의 태도와 관련한 예절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예식시의 인사방법, 신랑신부의 서 있는 위치와 방위 뿐만

아니라, 서양식 혼례 복식인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착용이 일반화되면서 이에 필요한 예의범절도 주의 깊게 실천해야 하며, 전통혼례를 할 경우도 혼례복식에 대한 의미나 착용법 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폐백은 현구고례라고도 하며, 이는 현재 지켜지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혼례의 절차이다. 현구고례(見舅姑禮)는 신부를 시댁의 대소가에 소개하고 가문의 새 구성원으로 흡수하는 의식으로 매우 가장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Ju, 2010). 폐백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시부모부터 시작하여 시조부모, 시숙부, 시고모 순으로 차례로 큰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Park, 1988). 그러나 현대에서는 이러한 형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경상도지역에서는 1970년대부터 서울지역에서는 90년대부터 양가 어른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나타났다(Hong, Lee & Park, 2002). 현재 웨딩현장에서는 폐백도우미가 이 절차에 참여하고 있지만, 폐백 시 준비해야 할 음식, 옷차림, 절하는 형식, 절을 드리는 가족의 서열과 순서 등의 예법도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는 예법으로 새롭게 교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신혼여행 시 지켜야할 에티켓, 혼인 후 가족 간의 호칭과 언어예절, 첫 명절과 양가부모님 생신, 가족행사 등에서 지켜야할 예의범절 등도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 도구개발을 위해 시도했던 V웨딩 컨설팅중사자 인터뷰(2011.9.1.)에서도 교육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온라인상이나 컨설팅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웨딩신부수첩이나 웨딩체크리스트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Table 2>를 참고해 볼 때, 현행 혼인준비교육에서는 위에서 고찰한 혼례 예절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혼인준비자를 대상으로 혼인준비에 필요한 혼례예절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혼인준비교육 시 프로그램에 추가 반영되어야 할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혼인준비를 위한 일반적인 교육 요구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혼인준비자들의 혼례예절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혼례예절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혼인준비자들의 일반적 사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혼례예절교육 요구도는 교육내용별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가?

2. 조사도구 및 자료수집

본 조사 도구는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Sohn & Kim, 2005; Ju, 2010; Lee, 2012)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학력, 종교, 직업 등 일반적 사항 5문항, 혼인준비를 위한 일반적인 교육적 요구(교육프로그램실시의 중요성, 교육시작시기, 교육 횟수, 교육형태, 교육담당자, 교육기관, 교육 참여 형태, 교육 참여 의사) 8문항, 혼례예절교육 요구도(상견례, 함보내기, 예단, 예식시의 태도, 폐백, 신혼여행, 가족생활예절) 35 문항으로 총 48문항을 구성하였다. 혼례예절교육 요구도 측정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의 신뢰도

는 다음 <Table 3>와 같이, 각 영역별로 .85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조사는 서울 V웨딩업체의 지부에서 웨딩컨설팅을 받으며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1년 9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였다. 조사원은 현재 웨딩업체 종사자이자 웨딩문화산업학 전공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4명으로 구성하여 질문을 위한 사전훈련을 실시한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기재 설문을 제외한 총 230부의 자료는 spss/win17.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F-test, t-test, 상관관계 분석 등으로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령은 20대가 55.22%, 30대가 44.78% 였으며, 여성이 66.52%, 남성이 33.48%였다. 학력은 대졸이 66.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40%, 무교나 기타가 37.39%였으며, 직업으로는 회사원이 41.74%, 전문직이 20.43%, 서비스직이 19.57%, 자영업이나 기타가 18.26%였다.

Table 3. Reliability of the Scale

Variables	Number of Question	Cronbach's α
A meeting between the families of the bride and the bridegroom	5	0.90
Ham	5	0.94
Wedding presents	4	0.91
Wedding manner	5	0.85
Pyebaek	4	0.93
Honeymoon	5	0.87
Family life manner	7	0.93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230)

Divide	N	%	
Age	20~29	127	55.22
	30~39	103	44.78
Gender	Male	77	33.48
	Female	153	66.52
Education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es	59	25.65
	Under graduates	154	66.96
	Graduates and higher school	17	7.39
Religion	Christian	92	40.00
	Catholicism	21	9.13
	Buddhism	31	13.48
	Nonreligious, etc.	86	37.39
Job	Company employee	96	41.74
	Specialized job	74	20.43
	Service industrial employees	45	19.57
	Self-employment & etc.	42	18.26
Total	230	100.00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혼인준비를 위한 일반적인 교육요구

혼인준비를 위한 일반적인 교육요구는 <Table 5>에 제시

한 바와 같다. 혼인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대부분 중요하다(79.57%)고 생각하고 있으며, 적어도 결혼 3-5개월 전부터 시작하고(50.87%), 1-3회(60%)의 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형태로는 2~3개월동안 토요일 오후를 이용해서 (34.78%), 또는 1개월 동안 주말오후나 평일저녁(29.13%)을 이용하는 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Table 5. Respondent's General Need for Marriage Preparation (N=230)

	Division	N	%
Importance of the program	very important	73	31.74
	important	110	47.83
	just so-so	40	17.39
	little importance	6	2.61
	nothing of note	1	0.43
Program start time	1-2 months ago	77	33.48
	3-5 months ago	117	50.87
	6-8 months ago	27	11.74
	9 months ago	9	3.91
Program times	1-3 times	138	60.00
	4-6 times	65	28.26
	7-9 times	15	6.52
	more than 10 times	12	5.22
Educational form	on Saturday afternoon (2~3 months)	80	34.78
	on Weekend afternoons(saturday, Sunday) (1 month)	67	29.13
	on Weeknight / 2 times program (2~3 months)	67	29.13
	on Sunday (morning/afternoon) (1~2 months)	16	6.69
facilitator	well trained couple	57	24.78
	marriage officiant	1	0.43
	religious leader	5	2.17
	field expert	167	72.61
Institution	institute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s	109	47.39
	institute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s in government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67	29.13
	a religious organization (church , collegiate church , temple, etc.)	17	7.39
	social service activities organization (YMCA, etc.)	11	4.78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center of university, etc.	26	11.30
Participatory methods	anytime couple	106	46.09
	as far as possible couple	76	33.04
	individually, single men and women	22	9.57
	anyone else, premarital adult	26	11.30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irrespective of tuition fee	62	26.96
	free of charge	141	61.30
	take no interest	27	11.74
Total		230	100.00

나타났다. 교육담당자는 해당분야별 전문가(72.61%)가 교육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혼인준비교육전문기관(47.39%)이나 정부 및 지자체단체에 소속된 혼인준비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29.13%) 등에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참여 방법은 반드시 혼인을 앞둔 예비커플이 함께 참여(46.09%)하거나 가능한 커플이 함께 참여(33.04%)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무료교육(61.30%)일 때, 또는 유·무료에 관계없이 참여하겠다(26.96%)는 경우를 합산해 보면, 교육 참여의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혼인준비를 위한 교육은 주로 무료교육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혼인준비를 위한 혼례예절교육 요구도

혼인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혼인예절교육 요구도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혼례예절교육 요구도는 5점 만점에 3.59로 나타났으며, 교육내용별로는 예단주고 받는 예절(3.76)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고, 결혼 후 가족생활에 필요한 예절교육(3.68), 결혼준비를 위해 양가 어른들의 상견례 예절(3.66), 폐백예절(3.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육요구도 결과를 볼 때, 실제 혼인준비과정에서 예단과 상견례 등은 예의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본다. 즉 서론에서 밝혔듯이 예단이나 상견례 등은 혼인준비과정에서 파혼에 이르게 하는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 바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혼례예절교육요구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7>과 같다.

상견례교육에서는 상견례에 적합한 장소와 시간정하기(3.76), 상견례 시 대화 내용과 표현방법(3.72), 상견례 시 가족소개와 진행절차(3.70)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교육 요구가 상견례 교육 내용 중 다른 내용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 기회 등이 거의 없으므로, 양가가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는 일이 혼인준비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겠다.

함에 대한 예절은 함을 보내는 시기와 절차(3.60), 함의 의미(3.57), 함에 들어갈 예물과 서식 등에 관한 내용(3.56)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3.5 이상으로 나타났다. 함은 오늘날 혼례에서도 지켜지고 있는 전통혼례의 관습으로 앞으로도 지켜질 것으로 보여(Ju, 2010; Lee, 2012), 이에 대한 교육적인 관심을 새롭게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단에 대한 예절은 예단주고 받을 때의 예절(3.82), 예단 드리는 대상과 방법(3.81), 예단의 종류(3.77), 예단 가격의 범위(3.65) 등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다른 내용의 교육 요구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예식 시의 태도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예식진행순서(3.65)나 신랑신부 입장과 퇴장 시 주의사항(3.50)에 대한 교육적인 요구도가 나타났다.

폐백예절에 대한 교육 요구도에서는 폐백의 의미(3.67)나 폐백을 드릴 때 절하는 순서와 방법(3.67), 폐백절하는 대상과 범위(3.63), 준비해야 할 폐백음식의 종류와 의미(3.60) 등이 3.5이상의 교육적인 요구가 나타났다.

신혼여행에서 지켜야 할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신혼여행 후 부모님께 인사가기(3.52)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그 외의 신혼여행 교육요구도 보다는 높았다.

한편 가족생활예절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혼인 후 부모님의 첫 생신이나 첫 명절을 맞이할 때 지켜야 할 예절(3.83)이나 배우자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호칭(3.80), 가정의 경조사사가 있을 때 지켜야 할 예절(3.75) 등에 관한 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이는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성장한 남녀가 결혼을 통해 생활적응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예의를 바로 알고 지키지 못했을 때 겪을 어려움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낸 바라 하겠다.

Table 6. The Need for Wedding Etiquette Training for Premarital Education (total)

Division	Program	M	S.D	Ranking
Wedding Etiquette Training (3.59)	A meeting between the families of the bride and the bridegroom	3.66	0.733	3
	Ham	3.52	0.833	5
	Wedding presents	3.76	0.780	1
	Wedding manner	3.49	0.730	6
	Pyebaek	3.64	0.768	4
	Honeymoon	3.36	0.745	7
	Family life manner	3.68	0.755	2

Table 7. The Need for Wedding Etiquette Training for Premarital Education (details)

Division	Educational contents	M	S.D
A meeting between the families of the bride and the bridegroom	set a place and time for a meeting	3.76	0.856
	introduce mutual & process	3.70	0.852
	price of food & method of payment	3.46	0.889
	conversation & method of expression	3.72	0.877
	table manner & dress	3.67	0.849
Ham	the meaning of ham	3.57	0.902
	send the ham to the bride's : time & process	3.60	0.938
	ham : wedding present & formula	3.56	0.964
	ham : packing method	3.41	0.919
	when bridegroom will receive ham, manner & dress	3.49	0.910
Wedding presents	wedding presents : method	3.81	0.864
	wedding presents price	3.65	0.902
	kind of gift	3.77	0.884
	manner to give and receive presents	3.82	0.862
Wedding manner	when couple are wedding ceremony, standing position	3.40	0.996
	when couple are wedding ceremony, couple's attitude and bow	3.46	0.914
	wedding process	3.65	0.867
	wedding recession : a few of simple rules	3.50	0.905
	wedding party : manner & bow	3.45	0.960
Pyebaek	the meaning of pyebaek	3.67	0.880
	pyebaek food & meaning	3.60	0.838
	bowing : order and method	3.67	0.844
	bowing : procedures and people who are bowing	3.63	0.829
Honeymoon	honeymoon etiquette	3.26	0.866
	understanding culture of honeymoon destination	3.27	0.848
	after arriving at honeymoon destination, call couple's parents	3.43	0.931
	after honeymoon, buy present for parents	3.34	0.966
	after honeymoon, go to bow parents	3.52	0.938
Family life manner	appellation about spouse's parent, family	3.80	0.869
	attitude & manner about spouse's family	3.68	0.886
	housewarming party etiquette	3.30	0.959
	when they celebrate or mourn something, observe the proprieties	3.75	0.874
	after wedding celebration, observe the proprieties : (ex) parent's birthday, national holiday	3.83	0.939
	when spouse's family visit, manner that you must be	3.70	0.896
	understand of family relation & family life manner	3.71	0.929

3. 혼인준비자들의 일반적 사항별 혼례예절교육 요구도

혼인준비자들의 연령, 성별, 직업에 따른 혼례예절교육 요구도의 차이는 <Table 8>, <Table 9>을 보면, 상견례의 경우 연령별로는 교육적 요구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 ($P<.01$), 직업별($P<.05$)로는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3.74)이 남성(3.52)보다 교육요구도가 높았으며, 전문직종사자(3.89)가 회사원(3.51)이나 서비스직종사자(3.67)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한편 함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성별($P<.05$)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3.63)이 남성(3.31)보다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예단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연령이나 성, 직업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예물과 예단 주고받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행연구(Ju,2010) 결과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행하고자 하는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한 추후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식 시 태도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성별($P<.01$), 직업별($P<.05$)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3.56)이 남성(3.36)보다 교육요구도가 높았으며, 전문직(3.75)이 가장 높았고, 회사원(3.33)이 다른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요구도가 낮게 나타났다.

폐백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연령($P<.05$)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20대(3.73)가 30대(3.53)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신혼여행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연령, 성별, 직업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족생활예절 교육 요구도는 성별($P<.01$)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3.73)이 남성(3.60)보다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전체적인 혼례예절교육 요구도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 ($P<.05$)이나 직업별($P<.05$)로 차이를 보였다.

위의 결과들을 볼 때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직업별로는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 혼례예절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The Need for Wedding Etiquette Training for Premarital Education According to Age, Gender & Job 1

Division	A meeting between the families of the bride and the bridegroom		Ham		Wedding presents		Wedding manner		
	M	S.D	M	S.D	M	S.D	M	S.D	
Age	20~29	3.65	0.72	3.60	0.84	3.79	0.77	3.53	0.75
	30~39	3.67	0.74	3.43	0.82	3.73	0.79	3.45	0.71
	total	3.66	0.73	3.52	0.83	3.76	0.78	3.49	0.73
	t-value	-.208		1.520		0.506		0.832	
Gender	male	3.52	0.84	3.31	0.87	3.58	0.83	3.36	0.77
	female	3.74	0.66	3.63	0.80	3.85	0.74	3.56	0.71
	total	3.66	0.73	3.52	0.83	3.76	0.78	3.49	0.73
	t-value	-2.74**		-2.57*		-1.958		-3.69**	
Job	Company employee	3.51	0.81	3.45	0.79	3.70	0.80	3.33b	0.79
	Self-employment	3.77	0.81	3.50	0.46	3.73	0.71	3.40ab	0.53
	Specialized job	3.89	0.61	3.58	1.04	3.97	0.73	3.75ab	0.72
	Service industrial employees	3.67	0.69	3.59	0.85	3.69	0.90	3.56ab	0.62
	etc.	3.75	0.58	3.58	0.70	3.75	0.59	3.57ab	0.67
	total	3.66	0.73	3.52	0.83	3.76	0.78	3.49	0.73
F-value	2.46*		0.364		1.062		3.04*		

* $p < .05$, ** $p < .01$

Table 9. The Need for Wedding Etiquette Training for Premarital Education according to Age, Gender & Job 2

Division	Pyebaek		Honeymoon		Family life manner		wedding etiquette total		
	M	S.D	M	S.D	M	S.D	M	S.D	
Age	20-29	3.73	0.77	3.38	0.78	3.70	0.77	3.62	0.55
	30-39	3.53	0.75	3.35	0.71	3.66	0.74	3.55	0.49
	total	3.64	0.77	3.36	0.75	3.68	0.76	3.59	0.53
	t-value	2.03*		0.291		0.452		1.076	
Gender	male	3.39	0.79	3.32	0.84	3.60b	0.88	3.45	0.61
	female	3.77	0.73	3.38	0.69	3.73a	0.69	3.66	0.47
	total	3.64	0.77	3.36	0.75	3.68	0.76	3.59	0.53
	t-value	-0.597		-1.090		-2.72**		-2.16*	
Job	Company employee	3.54	0.79	3.28	0.77	3.59	0.72	3.48	0.55
	Self-employment	3.75	0.60	3.30	0.88	3.51	0.63	3.55	0.37
	Specialized job	3.74	0.79	3.57	0.65	3.88	0.72	3.77	0.51
	Service industrial employees	3.68	0.77	3.36	0.83	3.66	0.93	3.60	0.56
	etc.	3.72	0.71	3.35	0.57	3.78	0.63	3.64	0.40
	total	3.64	0.77	3.36	0.75	3.68	0.76	3.59	0.53
	F-value	0.825		1.315		1.470		2.58*	

* $p < .05$, ** $p < .01$

Table 10. Correlation of Variables

	A meeting between the families of the bride and the bridegroom	Ham	Wedding presents	Wedding manner	Pye baek	Honeymoon	Family life manner
A meeting between the families of the bride and the bridegroom	1.00						
Ham	.234**	1.00					
Wedding presents	.280**	.656**	1.00				
Wedding manner	.404**	.257**	.329**	1.00			
Pyebaek	.318**	.659**	.634**	.485**	1.00		
Honeymoon	.492**	.099	.204**	.446**	.219**	1.00	
Family life manner	.535**	.195**	.316**	.450**	.256**	.704**	1.00

** $p < .01$

4. 혼례예절교육 요구도의 교육내용별 상관관계
 혼례예절교육 요구도의 교육내용별 상관관계를 보면 <Table

10>과 같다. 상견례의 경우는 가족생활예절(.535), 신혼여행(.492), 예식 시 태도(.404)와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함에 대한 교육요구는 폐백(.659), 예단(.656)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예

단에 대한 교육요구는 폐백(.634)과 관련성이 높았으며, 예식시 태도에 대한 교육요구는 폐백(.485)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신혼여행 예절교육요구는 가족생활예절(.704)과의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혼례예절교육프로그램을 구성 할 때에 관련성이 높은 영역을 범주화하여 교육차시별로 고려하여 내용을 구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현재 시행되는 혼인준비 교육 중에 혼례예절교육을 포함한 새로운 혼인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Yoo, Oh, & Lee, 1995; Park & Kim, 1997; Oh, 2001; Paek, Seo & Shin, 2003; Sohn, Kim, 2005; Kang, 2008; Park & Lim, 2009)에서 살펴본 혼인준비교육은 대부분 혼인 후 부부적응 과정을 돕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현행 혼례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혼인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혼인은 했어도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혼례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혼인준비교육에서도 혼례관행이나 예법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현행 혼례에서는 전통과 현대적 모습이 혼재하며, 예법에 따르는 관행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혼인 후 부부적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행 혼인준비교육을 보완하며, 혼례절차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혼례예절교육을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혼인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중요하다 79.67%)할 수 있었고, 무료교육(61.30%)으로 전문가(78.61%)로부터 교육받고자하는 요구 등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결혼 전 3개월 이전에 주말이나 평일저녁을 이용하여 혼인준비전문교육기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을 계획 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 예로 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혼인준비자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혼인준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웨딩컨설팅 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센터와 업체 간의 관학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지원 형식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고 확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둘째, 혼인준비를 위한 교육은 부부 적응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행 프로그램 내용 중에 혼례예절교육 내용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예단주고받기, 가족생활예절교육, 상견례 예절, 폐백예절, 함 주고 받는 예절 등의 전통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내용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행 혼례에서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이 추가되고,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와 양가 혼주의 견해차이나 갈등 해소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도 교육이 된다면, 혼인 준비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혼인당사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혼인준비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파혼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혼인준비를 위한 혼례예절교육 요구에 대한 세부내용 중에는 전통혼례절차에서 요구되었던 예단, 함, 폐백 등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혼례절차나 예법, 형식 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혼례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나, 현행 혼인준비과정에서는 웨딩업체에서 권하는 대로 하거나, 관행으로만 알고 대처하여 의미도 파악하지 못한 채 혼례를 치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혼례문화의 발전적인 계승차원에서 볼 때 교육내용의 재고가 필요하다.

넷째, 혼인준비를 위한 혼례예절교육 요구도는 남성(3.45) 보다는 여성이 높은 요구도(3.66)를 나타내고 있고, 일반회사원(3.48)보다는 전문직(3.77)일 경우가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하여 교육프로그램 계획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우는 그 필요성이나 교육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낮아, 이에 대한 의미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남성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구안도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다섯째, 혼례예절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시, 교육내용요구도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1차시는 상견례, 함, 예단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2차시는 예식시의 태도, 폐백, 가족생활예절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범주를 구분하여 교육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혼인준비자들은 2-3회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혼인예절교육 프로그램을 범주화하여 계획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인 혼인준비자의 일부를 대상으로 연구된 것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고, 연구결과와 확대해석에도 한계가 있으나, 후속연구를 통해서 보완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후속연구에서는 혼례예절교육을 포함하는 혼인준비교육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시행한 후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혼인준비를 하는 당사자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자녀의 혼인을 준비하는 혼주가 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녀혼인준비를 위한 혼례예절교육 요구도 조사를 비

못하여 '자녀 혼인준비를 위한 혼례예절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후 교육효과성 검증 등도 앞으로 필요한 연구 과제라 사료된다. 또한 혼인준비자들을 대상으로 혼례 준비과정에서의 혼례관행 및 혼례예절 이해도의 차이에 따른 문제와 갈등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혼인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혼인준비자들로 하여금 현행 웨딩상품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웨딩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혼례예절교육요구도와 교육프로그램개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혼례는 다양한 사회현상 및 가치관의 변화 등과 맞물려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도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한 혼례와 관련된 각 기관과 웨딩컨설팅업체들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혼례예절교육 프로그램이 구성, 도입되고, 정책적으로도 지원되어 교육이 시행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이를 통하여 혼례예절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고 해당 지식이 축적되어 그 효과가 확산된다면, 물질만능의 의식이 저변에서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 혼례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이나 공익적인 제도 등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교육적인 노력을 시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생활문화의 발전적인 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Byun, Y. (2008). *Effect of the marriage preparational education for early married couple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 Cho, C. (2008). The understand and utilization about Korean wedding ceremony, *Cultural Properites*, 5, 291-326.
- Cho, G. (2004). *A study on underlying philosophy of the traditional marriage ceremony*.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Cho, H. (2008). Research on the norm and the reality for marriage in Cho-Sun Dynast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1), 29-47.
- Gwon, B. (2007). *A research on the wedding ceremony according to Li Jae's "Saryebyoenram"*.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Hong, N. & Lee, E. & Park, S. (2001).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Korean wedding culture in 20th centur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1), 141-156.
- Hwang, K. (1994). *A study on the transition about wedding ceremon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Jeong, M. (199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emarital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 Dept. of Home Management, Ulsan University, Ulsan.
- Jeong, Y. & Kweon, S. & Jang, H. (2001). The perception and its practice on marriage ceremony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mothers in Chungbuk area.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0(2), 165-178.
- Ju, Y. (2010). A research on perceptions of the wedding ceremony of unmarried people for the succession of Korean traditional wedding culture.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1), 57-71.
- Jung, M & Kim, D. (2001). Constructing premarital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 and investigating its effec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4), 69-83.
- Kang, J. (2001). *Transition of Korean society and marriage custom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Kang, Y. (2008),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pre-marital program for preliminary couple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 Kim, D. (1997). *An Introduction to Practice etiquette*, kyomunsa, Seoul.
- Kim, I. (2008). The study on consciousness and attitude about wedding ceremony of wedding vende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6), 1191-1195.
- Kim, M. & Yoon, H. (2007). Recogni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of the passage rites and food-one hundredth birthday and the first birthday rites and wedding ceremony. *Korean Journal of food cookery science*, 23(1), 140-149.
- Kim, S. (2006). *The reality of the conventional wedding outfit reflected in the modern wedding outfit*.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S. (2009). The principal and meaning of Korea traditional etiquette. *MunMyoungYeonJi* 9(2), 165-197.
- Kim, H. (1990). A development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model for adult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Ewha Women's University,

- Seoul.
- Lee, H. (2002). The philosophy meaning of Korean wedding ceremony. *Confucianism research*, 17, 83-103.
- Lee, H. (2012). *A study on the wedding culture in Gyeongbuk Provi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Y. & Seo, B. (1999). An analysis of consciousness toward wedding ritual : A Comparison of the Young and Old Gen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4), 111-124.
- Lee, J. (1998). *A study on the undergraduate's awareness of Korean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J. (2007). *A study on the effect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on the basis of influencing mutual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 Lee, K. (1982). *(The) Structure of the consciousness of the Korean reflected in the domestic courtesy and ritual : centering on the wedding ceremony and ancestral serv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Lee, K. & Ju, Y. (1994). A study on wedding ceremony in Chosun dynasty. *Journal of Living Culture Research*, 8, 217-231.
- Lee, K. (1997). Korean wedding culture. *Korean Journal of dietary culture*, 12(2), 203-206.
- Lee, K. (1999). A study on the change of ceremonies of marriage and ancestor worship since liber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 153-187.
- Lee, N. (2005). The continuation and change of Korean marriage -to reexamine traditional marriage spirits in a modern way-.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Lee, S. (1993).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behavior of wedding ceremony*.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Lefevre, Holly (2009). *The everything wedding etiquette book*, Adams Media Corporation.
- Lim, G. (2009). *A courtesy-learning based study on Korean traditional wedding*.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Oh, Y. (2001).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andragogical approach. *Journal of Family Relations*, 6(1), 109-135.
- Paek, J. & Seo, S & Shin, S. (2003). Development of the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for premarital coupl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8(1), 1-27.
- Park, C. (2010). School of marriage preparation, *Educational Church*, 393, 27-32.
- Park, D. (2007). *A study on the maintenance and the changes of wedding culture in Cheongun tow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 Park, J. & Lim, S.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s for Marriage" expectant couple, *Journal of Home Management*, 27(2), 29-43.
- Park, M. & Kim, D. (1997).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for premarital coup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4), 47-77.
- Park, H. (1988). A study on the Korean traditional marriage ri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Seo, S. (2001). The wedding custom of Korea : Problems and Ways for Improvement. *Yehak*, 6, 113-128.
- Sohn, J. & Kim, J.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for singl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0(3), 219-236.
- Yoo, Y. & Oh, Y. & Lee, J. (1995). A study on the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for the strong family, *Journal of Kyung Hee University*, 24, 147-171.
- <http://www.chosun.com>
- <http://donga.com>
- <http://www.ehow.com/wedding-etiquette>
- <http://www.elegala.com/go>
- <http://www.kostat.go.kr>
- <http://terms.naver.com>
- <http://wedding-etiquette.net>
- <http://yeongnam.com>
- 접수 일 : 2013년 07월 13일
- 심사 일 : 2013년 08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9월 24일